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주요 농업인단체 만나 농지 전수조사 현장 의견 청취

- 농지 전수조사의 정확한 취지와 사후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농업인단체와 현장 소통 강화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30일(수) 주요 농업인단체 사무총장·전무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사후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농지 전수조사 이후 구체적 조치 방향을 농업인단체에 설명하고, 단체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정부의 조치 방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실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제대로 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농지 증가 등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농지 관리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에게도 농지 조사의 취지와 구체적인 조치방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함께 노력하자”며, “농업인단체를 통해 전달되는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도 꼼꼼히 살펴 농촌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농지과	책임자	과 장	김기환 (044-201-1731)
		담당자	사무관	임창섭 (044-201-2731)